

# 대선주자들, 경선 주도권 잡기 ‘호남 세몰이’ 사활

Ⓛ ‘선택 2017’ 대선 D-53

문재인 20일께 또 광주 찾아  
안희정 부인 주말 지역 누벼  
이재명 적폐청산 위기 강조  
안철수 캠프 ‘국민광장’ 발대  
손학규 호남 배수진 총력전  
박주선 5·18묘지 출마회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이 후보 경선이 임박하면서 첫 경선 지역이자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호남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이자 첫 경선지역인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향후 본선에서도 호남 민심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은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각 후보 측은 오는 25~26일에 열리는 호남권 첫 순회경선이 대선 경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 측은 막판 호남 민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과 11일 진도 팽목항과 울돌목,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20일께 다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전국 지역망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원부의장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에는 호남 출신으로 문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광주에 내려와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캠프 내에서는 호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후보는 부인인 민주원씨가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동부권 등을 방문해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민씨의 호남 방문은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방문이다.

민씨는 광주 서구 어린이집 연합회, 말바우 시장, 수완지구 하나마트 등을 방문해 보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장 민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호남 지역민들에게 안희정 후보의 ‘통합의 리더십’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또 여성 지방의원과의 간담회, 지역 종교계 원로들과의 면담도 갖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15일 광주를 방문해 언론사 기자간담회, 대학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적폐청산의 위

기와 민주당의 위기, 야권통합의 위기를 강조하며 문 후보와 안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국민의당도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하면서 각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첫 경선이 야권의 심장이자 국민의당 기반인 호남에서 열리는 만큼 호남 경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 투표 결과가 80%를 차지하는 경선의 특성상, 조직 대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

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대선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보수와 중도의 확장성 및 경륜을, 박주선 후보 측에서는 호남의 자존심을 경선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빠르면 18일 또는 19일께 광주 방문을 계획하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신의 선거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광장 광주’ 발대식에 맞춰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에서 ‘배수진’을 친 손 후보 측도 다음주 또다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막바지 세몰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주선 국회의원부의장은 16일 지지자 300여명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대선 출마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진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 정권 교체되면 국정 농단이 반복되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돼 호남의 문제를 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 1차 마감 162만명  
호남 27만명 21%…수도권 69만명 5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1차 모집 결과, 호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집한 1차 선거인명부 확정 건을 의결했다. 이의신청을 반영한 결과 확정된 1차 모집 선거인단은 162만9025명이다.

권역별과 전국대의원 19만5572명, 투표소 현장 투표 신청인원 11만1403 명을 제외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 명부의 ARS 투표 신청자는 132만여명이다.

권역별로 수도권·강원·제주가 69만여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호남이 27만여명으로 21%를 차지했다. 21만여명이 신청한 영남권이 16%로 그 뒤를 잇고 충청권 선거인단 수는 13만여명으로 10%를 차지했다.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봤을 때 예상대로 야권의 텃밭인 호남이 전체 경선구도를 좌우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중 호남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지만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는 전체 인원 중 21%를 차지한 것이다. 또 수도권의 경우도 호남 출신 선거인단이 많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충청지역의 선거인단 비율이 10%에 머문 것에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수치만 놓고 보면 안 지사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 가까이 가면 각 지역의 민심과 전체 민심이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남은 모집 기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모인 충청권에서 선거인단 신청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충청지역의 선거인단 모집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유권자의 힘으로 적폐 청산하고 대립 끝내자

박근혜 파면  
새로운 대한민국 과제

### ⑥ 내 한표가 미래 결정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앞날에 대해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권자의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권자인 모든 국민이 기존의 틀인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등 이념과 지역 갈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정리하고, 안보와 외교,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투표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일

대통령 탄핵 이끌어낸 민주주의 저력 투표로 연결해야  
이념·지역갈등 종지부 찍고 정치개혁 등 변화 끌어내야

련의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맞서는 등 갈등과 분열, 대립 양상이 드러났지만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는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국민의 저력이 확인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결과라는 얘기다. 또 탄핵을 통해 유권자의 위상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로, 유권자인 국민의 힘에 의해 종교·이데올로기·지역갈등 등 어려운 문제도 풀 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의 주권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을 비롯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는데, 나라 안팎으로 쌓인 우리 사회의 미성숙된 적폐 등을 제대로 풀 적임자가 누구인지부터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정치권에 기대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이 국민에 의해 변화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이번 탄핵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은 만큼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유권자의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 나라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갈등과 혼란, 대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갑작스레 일정이 정해져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유권자 모두가 투표를 단순히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선택하는,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상가 사무실 매각 및 임대 공고



**면적** | 분양면적 601.27평, 전용면적 317.94평, 대지지분 48.02평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2번지 도청프라자 3층 전체

**문의** 제이제이건설(주) 010-4621-1289